간화선 교과서 '서장' 풀었다

서장
대혜종고 지음
전재강 옮김
운주사 | 1만8천원

간화선 수행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서장>이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과 전재강 교수(동양대 문화재발굴보존학과)의 노력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장>은 조계종 전통강원의 기본교재로, 출가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하는 필독서라 할 수 있다.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로도 불리는 이 책은 중국 남 · 북송 때의 임제종 선사 대혜(大慧, 1089~1163) 스님이 거사와 유학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선의 요지를 설명한 편지글을 모은 것이다. 수록된 65편의 서신 가운데 스님 2명과 여성 1명의 편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대의 지배계층이었던 사대부들과 주고받은 편지다. 이 편지에서 대혜 스님은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조사선의 핵심을 알리고 있다. 또한 스님은 '깨달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체험되는지'를 여러 장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화두를 공부하는 자세에 대한 대혜 스님의 조언은, 이 책을 화두 공부 지침서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게 만든다.

"첫째 화두를 드는 자리에서 알아채려고 하지 말며, 또 알음알이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다만 유의하여 헤아릴 수 없는 곳에 나아가서 의심하면, 문득 넘어지고 끊어지는 곳을 만나는 것과 같아질 것입니다."

고우 스님이 감수하고 전재강 교수가 역주한 <서장>은 이러한 장점에 더해 몇 가지 특색을 갖는다. 우선 이 책은 2001년 3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각화사 서암(西巖)에서 진행됐던 고우 스님의 강의에 기초하고 있다. 전 교수는 대혜 스님이 주장하는 '철저한 확철대오(廓徹大悟)'가 무엇인지 분명히 전달되게 번역했다. 또한 대혜 스님이 일생동안 비판했던 '깨달음을 부정하고 마음의 안정만 중시하는' 묵조선 사사배(私事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각 편지 뒤에는 '요지(要旨)'를 덧붙여 구체적인 내용을 해설해 두었다.

고우 스님은 추천사에서 "전 교수가 풀이한 <서장>은 현대 문체를 구사하면서도 원작의 고전적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어 전통 조사선을 공부하려는 연구자나 일반인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도깨비 · 해태의 원형은 사자"

문화재 곳곳에 등장하는 사자의 전래와 변화상 20년간 현장 찾아가 연구

불상을 걸어 나온 사자
이재열 지음
주류성 | 1만8천원

한반도에서는 한 번도 서식하지 않았던 사자(獅子). 드넓은 아프리카의 초원을 떠올리게 하는 이국적인 동물이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사자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각 시 · 도의 경계에 서 있는 사자상이나 사자탈춤에 등장하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부터 화엄사 사사자석등에서 보듯 석등이나 석탑을 떠받치는 수호신으로서의 모습까지, 사자는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자는 어떻게 우리 문화에서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일까?

최근 <불상을 걸어 나온 사자>를 펴낸 이재열 교수(경북대 미생물학과)는 "현재 서식처가 아프리카에 한정돼 있는 사자는 불교가 태동할 당시 인도 북부지방에서도 살았다"며 "당시 부처의 수호신이었던 사자는 불교가 한국에 전래되면서 우리 문화재 속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1980년대 독일 유학 생활을 하며 우리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된 이 교수는 귀국 후 틈틈이 짬을 내 역사와 문화의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취미로 삼게 됐다. 그 중에서도 사자와 해태에 대해 20여년 간 연구해 온 지은이는 이번 책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정을 350여 페이지에 걸쳐 담아내고 있다. 특히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사자에 관해 쓴 3장 '불상에서 걸어나온 사자'가 눈에 띈다.

지은이는 불상과 함께 서역에서 들어온 사자가 처음에는 불상의 대좌에 조각됐지만 벽사초복(辟邪招福,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임)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법당을 벗어나 석등과 부도에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무덤 내부와 그 주변에 장엄물로 세워지다 결국 '청자사자베개'나 '사자 연적(硯滴)', 기와 등 실생활용품에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책에는 문화재나 불화에 등장하는 사자의 모습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300여 장에 달하는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또한 지은이의 주장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도깨비의 원형을 사자로 지목한 점이다. 고구려 안악3호분 내부에서 보이는 도깨비 얼굴이 사자의 얼굴과 닮아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도깨비는 우리 조상들이 사자를 친근한 이미지로 빚어낸 것이라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이 밖에 '잃어버린 문화의 흔적을 찾아서'나 '되살아난 해태' 등에서는 우리 문화의 원류와 흐름을 짚어보려는 지은이의 시도를 볼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관심사를 쏟아내다 보니 다소 장황한 감도 있지만,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은이의 애정이 느껴져 쉽게 책을 놓을 수 없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경주 장항리사지 석조불대좌의 사자상(위)과 분황사 모전석탑 서쪽에 세워진 사자상의 모습.

새로나온 책

■ **<불교와 문화 9 · 10월호>**(대한불교진흥원, 7천원) = '지금은 수행의 시대-수행,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참선 위빠사나, 염불, 절 등 여러 수행법을 체험한 불자들의 수기를 소개한다. 또한 지난 8월 24일 입적한 '故 무애 서돈각 거사(前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추모특집'을 마련해 사진과 추모 글을 담았다.

■ **<숲에서 놀자>**(곽영미 · 박라희 지음, 리스컴, 9천8백원)=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쓴 '숲 놀이 책'. 국립수목원 산림환경 교육교사 곽영미 씨와 숲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라희 씨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숲을 구성하는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숲을 이루는 할미꽃, 물푸레나무, 쥐똥나무 등의 풀과 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진과 그림을 통해 숲과 더불어 생활하며 노는 법을 배울 수 있다.

■ **<논어, 내 삶을 흔드는>**(안은수 지음, 명상, 8천5백원)=오늘을 사는 우리는 '고전(古典)'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논어, 내 삶을 흔드는>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논어식 해법'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하라'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기보다 즐기는 것이 낫다' 등 <논어>의 주요 문구를 통해 인관관계의 해법을 제시한다.

선사들의 생생한 수행담

선사들이 띄우는 깨달음의 편지
정념 스님 엮음
장승 | 1만원

"그대는 이미 출가했으니 사문(沙門)이라 부른다."(<치문경훈> 中)

설악산 봉정암 주지 정념 스님이 '선사들의 편지'를 책으로 묶었다. <선사들이 띄우는 깨달음의 편지>는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뒤 20여년 간 설악산 백담사와 오세암, 계조암 등에서 수행 정진해 온 정념 스님이 '마음이 팍팍해질 때면 어린 아이가 곶감 빼먹듯이 틈틈이 읽던' 경전 구절들을 담은 책이다.

"최근 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지만, 선에 대한 왜곡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는 정념 스님은 "선을 '환각적이고 몽롱한 그 무엇'으로 여기거나 선사들의 무애행(無碍行)을 잘못 이해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책에서는 선 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선사들의 지혜와 교훈이 담긴 글을 중심으로 모았다. <치문경훈>을 비롯해 <계초심학인문>, <관심론> <이입사행론> <수심결> 등에서 원효 지눌 나옹 태고 휴정 스님 등 우리나라의 고승을 비롯해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 승찬 혜능 황벽 스님 등 기라성 같은 선사 30여 명의 수행담을 볼 수 있다.

'경책과 훈계' '수행의 지남(指南)' '참선의 요체'의 각 장에서 선사들이 몸소 체험한 수행담과 수행 도중에 일어나는 정신적인 변화, 그리고 오도의 경지에 들어서는 순간의 감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유아교육 30년 노하우

대학교육보다 100배 중요한 유아교육
안정자 지음
컬처플러스 | 1천5백원

前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안정자 부회장이 3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며 체득한 유아교육의 실전과 이론을 정리한 책을 펴냈다.

"유아교육이 대학교육보다 중요한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지은이는 이 책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 유아들 둔 부모들에게 자근자근 설명하듯 소개하고 있다. 현재도 유치원을 운영하며 유아교육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은이는 "유아들에게 학습을 강압하기보다 유아 자체로서, 한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아교육의 정도(正道)"라고 역설한다.

이준엽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인연법과 마음공부	혜국 스님	효 림
2	오체투지	한 경 혜	반디미디어
3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 터
4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김 성 철	불교시대사
5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 른 아 침
6	텐진빠모의 마음공부	텐진 빠모	열 림 원
7	스님이야기	지묵 스님 외	여 시 아 문
8	선방 가는 길	정 찬 주	열 림 원
9	불교란 무엇인가	고 영 섭	정 우 서 적
10	노스님의 젊음	지묵 스님	우리출판사

도서 안내 : (02)737-0695

바로보인 환단고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히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문재현 선사님께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불광 since 1974

30주년 기념

http://www.bulkwang.org

고승초청 대법회

● 때 : 오전 10시 ● 장소 : 불광사 보광당 ● 문의전화 : 02-413-6060 (불광법회)

10월 4일 | 지관 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10월 5일 | 정무 스님 법광사 조실
10월 6일 | 혜정 스님 법주사 회주
10월 7일 | 성수 스님 해동선원 조실
10월 8일 | 우룡 스님 학성선원 조실
10월 9일 | 정현 스님 내원정사 주지
10월 10일 | 고산 스님 쌍계사 조실

불교수행법 특별강좌 - 생활 속의 불교수행

현산 스님 화엄사 선원장
지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무여 스님 축서사 선원장
지홍 스님 | 월간 불광 발행인
청견 스님 | 『절 기차게 하는 법』 저자
무심 스님 | 직지사 교무국장
정목 스님 | 정토선원 원장
성정 스님 | 조계종 문화부장
강선희 | 주부
박영재 |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류종민 | 중앙대 조각과 교수
김열권 | 『위빠싸나 1.2』 저자
이종린 | 홍익소아과 원장

일 시 : 2004년 10월~12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
장 소 : 불광교육원, 불광사 보광당
수강료 : 3개월 10만원 (총 10회의 강좌와 3회의 선원장 초청법회, 1강좌당 20,000원, 월간 불광 정기구독자 20% 할인)
정 원 : 108명 선착순
안내 및 접수 : TEL 02-420-3200 (월간불광) FAX 02-420-3400
E-mail : webmaster@bulkwang.org

강 좌 내 용	날 짜
● 선원장 초청법회 (10월) - 현산 스님 · 화엄사 선원장	10월 17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1 생활 속의 불교수행 - 지홍 스님, 월간 불광 발행인	10월 21일
2 절 - 청견 스님, 『절 기차게 하는 법』 저자 · 법왕정사 주지	10월 28일
3 사경 - 무심 스님, 직지사 교무국장 · 직지사승가대학 학감	11월 4일
4 염불 - 정목스님, 『한국의 염불수행』 저자 · 정토선원 원장	11월 11일
5 기도 - 성정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 불교방송 '신행상담' 진행	11월 18일
● 선원장 초청법회 (11월) - 지환 스님 · 조계종 기본선원장	11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6 주력 - 강선희, 능엄주 10만념 수행 · 주부	11월 25일
7 생활참선 - 박영재,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 선도회 지도법사	12월 2일
8 간경(경전독송) - 류종민, 중앙대 조각과 교수 · 금강경독송회 법사	12월 9일
9 위빠사나 - 김열권, 『위빠싸나 1.2』 저자 · 호두마을 지도법사	12월 16일
● 선원장 초청법회 (12월) - 무여 스님 · 축서사 선원장	12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10 보현행원 - 이종린, 『실천보현행원』 저자 · 홍익소아과 원장	12월 23일

신행수기 공모

창간 30주년을 맞는 월간 불광에서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함께 나누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부처님을 처음 만나면서 흘렸던 눈물, 가슴 뭉클한 사연,
그 감동! 그 이후 달라진 삶.
누구에겐가 말하고 싶었어도 기회가 없어
가슴 깊이 소중하게 묻어두었던 신행담.
부처님 그늘에 살면서 느꼈던 감동,
신행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승모요령

● 주 제 : 나와 불교의 만남 (인연담), 부처님이 주신 은혜 (가피 · 영험담), 일상 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전법 · 수행담)
● 매 수 : 200자 원고지 20~30매 (주소, 이름, 전화번호 명기)
● 대 상 : 청소년 / 일반
● 마 감 : 2004년 9월 30일 (당일 도착에 한함)
● 보내실 곳 : (138-844)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2 월간 불광 신행수기 모집 담당자 앞, e-mail: webmaster@bulkwang.org
● 문의처 : (02) 420-3200, 3300
● 시 상 : ·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상금 · 우수상 (2명) - 상장 및 상금 · 장려상 (5명) - 상장 및 상금 · 입선 (00명) - 상장 및 소정의 기념품
● 응모자 전원 : 월간 불광 1년 정기구독권
● 발 표 : 월간 불광 2004년 11월 창간 30주년 기념 별책부록에 게재 발표